

1월 4주차 Q&A — 금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가능성

2026-01-19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1_03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두 번째 Q&A — 미국이 금값을 끌어내릴 도구는 지난 90년 동안 강력 했지만(1933 루즈벨트 몰수 + 종이금 네이키드 공매도 '오즈의 마법사' 작전 + 1970년대 35\$ 고정 시도) 2020년대에 거의 모두 약화됐다. 브릭스+·국부펀드가 종이금을 거부하고 현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, 바젤 3가 공매도 85% 증거금을 의무화하며 금을 Tier 1(현금 동급) 자산으로 승격시켰다. 미국이 남긴 4가지 수단(증거금 인상·기준금리 인상·보유 불법화·연준 금 매각)은 모두 자기 발에 총을 쏘는 부작용을 동반한다. 한국 외환보유고 금 비중 3.7%(장부상 1.2%)는 G9 경제 규모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다 — 가치 저장 수단이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전환되는 시대 패러다임. 동시에 단기·장기 금융시장은 위험·규제·투자 목적으로 큰 벽이 있어 정부가 단기채만 대량 발행하면 단기 자금이 마르고 기업 운전자금이 부족해진다 — 이걸 연준이 단기채 매입으로 환원해주는 메커니즘이 part2_01(채권과 금리)의 기초.

01 핵심 골격

- 1 중앙은행 달러 비중 2019 70% → 2025 58% (-12%p) — 늘어난 자산: 금 + 기타 통화 (호주·위안·원)
- 2 미국 부채 가속 — \$20T (240년) → \$38T (8년) → \$45T (2029 추정), CBO 2036 GDP 120%
- 3 국가별 금 비중 — 독·프·이 60~70%, 러 20~30%, 인도 13%, 중국 8%(실제 12%), 한국 3.7%(장부 1.2%) ← G9 대비 비정상
- 4 1933 루즈벨트 대통령령 6120호 — 금 몰수 + 징역 10년 + 벌금 \$10K. 금-달러 90년 전쟁의 원년
- 5 종이금 + 네이키드 공매도 — '오즈의 마법사' 작전. 연준 8천 톤 + 초대형 은행 공포 (실은 허상)
- 6 JPMorgan \$920M (2020 CFTC 사상 최대) + 8 빅뱅크 합산 \$1.3B — 오즈 작전의 실제 사법 적발

- 7 1970s 폭등 24배 (\$35 → \$850) — 프랑스 의심 시작 → 독·네·벨 따라가 → 닉슨 1971 금태환 중단
- 8 2024~ 현재 폭등 1970s 평행 — 브릭스+ 현물 요구. 다만 미국 부채 GDP 비중 35% → 120%대로 더 취약
- 9 바젤 3 + Tier 1 자산 승격 (미국 2025-07 발효) — 공매도 85% 증거금 + 금 = 현금 동급
- 10 미국 남은 수단 4가지 한계 — 증거금 인상·기준금리·불법화·연준 매각 모두 부작용
- 11 단기 vs 장기 금융시장 큰 벽 — 자전거 vs 트럭 비유. 정부 단기채 + 연준 매입 빨대 메커니즘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5-13)

BRICS+ 금 보유 17.4% (강의 § 3 시간 연장)

BRICS+ 6,000톤 (글로벌 17.4%, 2019 11.2% 대비 가파른 상승). 러시아 2,336톤 + 중국 공식 2,298톤 + 인도 880톤. 2025 9개월 +663톤 (\$91B). WGC 2026 750~850톤 전망.

강의 § 3 '중앙은행 달러 비중 -12%p, 늘어난 자산 1순위 금' 메시지의 정량 검증. 2022 러시아 자산 \$300B 동결이 패러다임 분기점 — 이전 500톤/년 → 1,000톤+/년 3년 연속. 글로벌 mine supply 20%를 일방향으로 흡수하는 규모로 강의가 짚은 '미국이 막을 수 없는 흐름' 진행 중.

출처 · discoveryalert.com.au

Basel III Endgame 미국 2025-07 발효 (강의 § 10 검증)

미국 은행 물리 금 Tier 1 자산 인식 + HQLA(High-Quality Liquid Asset) 포함. 미 국채와 동급. WGC 설문 30%의 중앙은행 2025 금 비중 추가 확대 계획.

강의 § 10 '바젤 3 Tier 1 자산 승격' 명제의 시점 검증. 미국 적용은 2025-07-01 발효로 강의 시점 직후 본격 시작 — 미국 초대형 은행도 종이금 노출 줄이고 물리 금 확보 동기 ↑. 중소형 은행 금 보유량 증가의 핵심 트리거.

출처 · usfunds.com

미국 부채 \$38.43T + CBO 2036 GDP 120% (강의 § 4 시간 연장)

2026-01 \$38.43T (+\$2.25T/년 = +\$8.03B/일). 2026-03 [\$39T 돌파] (<https://fortune.com/2026/03/18/how-big-national-debt-39-trillion-trump-promises/>). CBO 2026 적자 \$1.9T (GDP 5.8%). 공공 부채 GDP 비율 2026 101% → 2036 120% (WWII 후 최고점 106% 돌파).

강의 § 4 '240년 → 8년' 가속의 시점 검증 + 시간 연장. 강의 시점 \$38T (강의 시점) → 회차 정리 시점 \$39T (Fortune 2026-03). CBO 30년 후 175% 전망. 미국 부채 가속이 1970s 평행이론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시점.

출처 · cbo.gov

JPMorgan \$920M + 8 빅뱅크 \$1.3B (강의 § 7 사례 후속)

JPMorgan 2020-09 \$920.2M (CFTC 사상 최대). 2008~2016 8년 spoofing (뉴욕·런던·홍콩 정밀금융 데스크). 트레이더 2명 형사 처벌 (Nowak 1년 1일 / Smith 2년). 8 빅뱅크 합산 \$1.3B 합의. 2025 은값 \$83+ 마지막 마디 + shorts 붕괴.

강의 § 7 '오즈의 마법사 작전 — 종이금 네이키드 공매도' 메시지의 실제 사법 적발 사례. 강의가 비유로 짚은 '오즈 작전'이 실은 불법적 가격 조작이었음이 CFTC·DOJ 합의로 정량 확인. 회차의 '미국 도구 약화' 결론을 외부 자료로 뒷받침.

출처 · cftc.gov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01 미국 부채 가속 + 국채 매입 둔화 모니터링 — 강의 § 3·4 명시. CBO 2036 GDP 120% 전망 + BRICS+ 금 17.4%로 가속. 회차의 핵심 시대 흐름.

02 한국 외환보유고 금 비중 추세 관찰 — 강의 § 5 명시 한국 3.7%(장부 1.2%). G9 경제 규모 대비 비정상. 가치 저장 수단이 미 국채 → 금으로 전환되는 시대 패러다임.

0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매월 관찰 — 단기 금융시장 마름 vs 연준 매입 메커니즘이 신호. 정부 단기채 빨대 + 연준 환원이 단기·장기 분리에 미치는 효과.

중앙은행 자산 중 금 비중 ↑ → 달러 패권 약화

발등에 불 떨어진 미국 (금값 폭등 시점)

미국과 금의 전쟁 역사 — 종이금 + 네이키드 공매도

1970년대 금값 폭등 (35달러 → 612달러, 24배 / 한때 850달러)

바젤 3 — 금 Tier 1 자산 승격

금 선물 매도 초대형 은행 약재 (브릭스+·국부펀드 현물 요구)

미국의 마지막 수단 — 선물 증거금 인상

단기 금융시장 vs 장기 금융시장

Fanding @kpunch · qna_part1_03